

멕시코

UNITED MEXICAN STATES



I. 일반개황

면적	1,964천 km ²	G D P	8,400억 달러(2006)
인구	107.40백만 명(2006)	1 인 당 GDP	7,820 달러(2006)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연방공화제)	통화단위	Peso(Ps)
대외정책	우경중립	환율(달러당)	10.90(2006년 말)

- 멕시코는 광활한 국토(한반도의 9배)와 풍부한 부존자원(석유생산 세계 5위, 은 생산 세계 1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국가임.
- 1994년말 발생한 금융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미국 등의 국제적 지원에 힘입어 동 위기를 극복한 이후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 국가로 평가받는 등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과를 보이고 있음.
-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 뿐만 아니라 EU, EFTA, 일본 등 세계 43개국과 12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미주지역 수출교두보로서 매우 중요한 국가임.

경제적 강점	경제적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안정 및 재정수지 흑자 유지, 해외거주자 송금액 유입 지속, 외채 규모 감소 등 경제 안정세 지속 · 풍부한 광물자원과 노동력 확보로 FDI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새로운 유전 발견 등 향후 자원개발 협력 대상국으로 유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대미의존도로 미국 경기 침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미국과의 경제 동조화 현상 지속 · 2006년 하반기 이후부터 지속된 수출성장세 둔화가 2007년에도 지속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규모 증가

II. 경제분야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f
경제성장률	1.4	4.2	2.8	4.8	3.1
재정수지 / GDP	-0.7	-0.3	-0.1	0.1	0.1
소비자물가상승률	4.6	4.7	4.0	3.6	3.9

자료 : IMF 및 EIU.

□ 최근 경제성장세 다소 둔화

- 멕시코 경제는 미국의 경기침체와 9.11 테러 발생 등의 영향으로 국내경제가 급속히 둔화되어 2001~03년 동안 경기침체를 보였으나, 2004~06년에는 미국경제 활성화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해외근로자의 모국 송금 증가로 인한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하였음.
-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국 경제의 경기 둔화로 인해 멕시코 경제도 1/4분기 GDP 증가율이 2.6%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경기 둔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수출증가세 둔화가 제조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해외근로자 송금유입과 민간여신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로 경제 전체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금년 전체로는 성장률이 3.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물가는 정부 목표(2~4%) 범위 내에서 안정 유지

- 물가는 최근 수년간 하향 안정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2004년에는 공공요금 동결, 긴축 통화정책 기조 유지 등 중앙은행의 물가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수요 증가로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목표 상한선인 4.0%를 소폭 상회하는 4.7%를 기록함.

- 그러나 2005년 이후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물가관리정책에 힘입어 소비자물가는 정부 목표인 4%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금년에도 미국의 에탄올 수요 증가로 인해 멕시코인들의 주식인 옥수수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인상되는 등 물가불안 양상이 나타났으나, 멕시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조치 등에 따라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흑자 전환

- 재정수지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03년 이후 재정수입의 1/3을 차지하는 원유수입 증가, 정부의 긴축정책 시행 등에 힘입어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며, 2006년에는 소폭 흑자로 전환됨.
- 국제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대와 긴축정책 지속 그리고 정부의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재정개혁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재정수지는 대체로 균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 높은 대미경제 의존 지속

- 대미 의존도가 낮아지고는 있으나, 멕시코 총수출의 89%, 총수입의 62% 정도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따라서 미국 경제가 침체되면 멕시코 경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등 미국과의 경제 동조화현상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응으로 멕시코 정부는 EU,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다변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조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깔데론 정부, 점진적 개혁정책 추진

- 깔데론 정부는 폭스 정부와 마찬가지로 연금, 조세, 에너지, 노동부문의 개혁정

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 폭스 정부와 달리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둔 점진적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07년 3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완료하는 등 경제개혁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고, 6월에는 거대 야당인 제도혁명당(PRI)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제외한 조세개혁법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안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임.

□ NAFTA 회원국으로 미국시장 접근에 유리

- 멕시코는 북미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한편, 태평양과 대서양에 면해 있는 지리적 요충국가로 북쪽으로는 미국과 3,326km의 국경을 접하고 있음.
- 멕시코는 NAFTA로 인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EU, 중남미 G3 국가 등 전세계 42개국과 11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미국, EU 및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생산거점 및 물류거점으로서 큰 장점을 갖고 있음.

□ 풍부한 부존자원과 인구 1억이 넘는 내수시장 보유

- 멕시코는 非OPEC 세계 5위의 산유국이자 세계 8위의 원유 수출국가로서 2004년 말 현재 원유 매장량은 330억 배럴, 천연가스 매장량은 63.9조 입방피트에 달하는 등 원유와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함.
- 멕시코는 또한, 인구가 1억 명이 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약 8,4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며, 멕시코 인구의 55%가 25세 이하인 매우 젊은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고 인구 증가율도 높아 향후 내수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국가신인도 제고와 거시경제 안정 유지

- 과거 대내 지향적 수입대체산업화(ISI) 발전모델을 포기하고 대외 지향적 수출주

도 발전모델로 전환한 이래 시장개방, 민영화, 규제완화 등 적극적인 개방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으로 상승하였고 거시경제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칼데론 정부도 폭스 정부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시장주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성장, 물가, 재정, 수출, 환율, 외채 등 거시경제 전반이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대규모 FDI 유입 지속

- 멕시코는 1990년대 들어 브래디 플랜을 통해 외채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NAFTA가 출범한 이후 외국자본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음. 멕시코는 개도국 중 중국과 브라질에 이은 세계 3위의 FDI 유치국가로서 최근 수년간 매년 200억 달러 내외의 FDI를 유치하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f
경 상 수 지	-8,851	-6,697	-4,662	-1,600	-8,200
경 상 수 지 / G D P	-1.4	-1.0	-0.6	-0.2	-0.9
상 품 수 지	-5,780	-8,811	7,587	-3,800	-13,600
수 출	164,766	187,999	214,233	248,000	259,600
수 입	170,546	196,810	221,820	251,800	273,600
외 환 보 유 액	57,740	62,778	73,015	75,448	76,589
총 외 채 잔 액	170,000	170,400	167,200	168,600	171,300
총 외 채 잔 액 / G D P	26.6	25.2	22.0	20.1	19.5
D . S . R .	21.7	22.5	17.2	16.9	16.6

자료 : IMF, EIU 및 세계은행.

□ 수출 증가세 둔화 전망

- 2004년 이후 고유가 지속과 미국의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2006년 하반기 이후 석유생산량 감소로 석유수출이 감소하고 미국경기 둔화로 인해 자동차, 전자제품 등 공산품 수출증가세도 둔화되기 시작하였음.
- 2007년 1/4분기 석유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하였으며, 공산품 수출 증가율도 6%로 낮아짐.

□ 경상수지 적자규모 증가 전망

- 경상수지는 최근 수년간 뚜렷한 개선 추세를 보였으나, 2007년에는 수출증가세 둔화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규모 확대로 경상수지도 1/4분기에만 2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금년 전체로는 GDP의 0.9%인 8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해외거주자 송금액 유입 지속

- 2005년 멕시코의 해외거주자 송금액은 2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06년 송금액은 23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약 2,000만 명에 이르는 미국 거주 멕시코인들의 본국 송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해외거주자 송금은 수출을 제외하고 외국인 관광수입과 함께 멕시코의 가장 중요한 외화가득원이 되고 있음.
- 2007년 1/4분기 해외거주자 송금액은 5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에 그쳤으나, 금년 전체로는 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규모 크게 감소

- 멕시코 정부의 신중한 외채관리정책과 지속적인 외채 조기상환에 힘입어 외채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음. 2006년 말 현재 총외채 규모는 GDP의 20.1%인 1,686억 달러이며, D.S.R도 16.9%에 불과함.

Ⅲ. 정치·사회분야

1. 정치 및 국제관계

□ 제도혁명당의 장기집권 71년 만에 붕괴

- 2000년 7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행동당(PAN)의 폭스(Vicente Fox) 후보가 제도혁명당의 라바스띠다(Francisco Labastida)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 12월 1일 취임함으로써 제도혁명당의 장기집권을 종식시키고 71년 만에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달성함.

□ 2006년 12월 깔데론 정부 출범 이후 정국 안정 회복

- 2006년 7월 실시된 대선에서 집권여당의 국민행동당(PAN)의 깔데론 후보가 35.8%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됨. 깔데론 후보는 폭스정부에서 에너지장관을 역임하였고, 친미적 시장경제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외국인투자기업과 경제계는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임.
- 2위를 차지한 민중혁명당(PRD)의 오브라도르 후보가 광범위한 개표부정이 이뤄졌다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대규모 시위를 주도함에 따라 일부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가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깔데론 정부가 출범 직후 강력한 마약범죄 소탕작전을 전개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등 정국은 대체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집권여당인 국민행동당의 의석수(하원 500석 중 206석, 상원 128석 중 52석)가 과반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깔데론 정부도 에너지, 노동, 조세 등 주요 개혁정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대미관계 강화 등 적극적인 대외정책 전개

- 깔데론 정부는 미국, 캐나다와의 기존 협력관계 유지 강화 및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고, 중남미 국가와의 유대 강화를 통한 역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마약거래, 불법이민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나,

친미 성향의 깔데론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도 대체로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EU와 포괄적 협력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APEC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EU 및 아·태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빈부격차와 치안불안 문제가 상존하나 소요사태로의 발전가능성은 낮음

- 2006년 대통령 선거에서 북중부와 중산층은 깔데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부와 저소득층은 오브라도르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 이데올로기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빈부격차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치안불안이 심각한 상황이고,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이 지속되고 있으나, 체제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강력한 마약범죄 소탕작전 전개

- 깔데론 정부는 3대 마약 카르텔 소탕을 목표로 3만여명의 군경을 주요 마약 카르텔 활동지역에 파견하여 강력한 소탕작전을 실시하고 있음. 마약 카르텔과의 유혈 충돌과 테러로 인해 2007년 1~5월 사이에 1천명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멕시코 군경과 마약 카르텔간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음.
- 그러나 마약범죄 소탕작전에 대한 국민들이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어, 이로 인한 치안불안이 심각한 소요사태로 발전하거나 정국안정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IV. 국제신인도분야

<표 3>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4	3	2
O E C D	(1997.3)	(2000.4)	(2005.6)
S & P	BBB- (2002.2)	BBB (2005.1)	BBB+ (2007.10)
Moody's	Baa3 (2000.3)	Baa2 (2002.2)	Baa1 (2005.1)
F i t c h	BBB- (2002.1)	BBB (2005.12)	BBB+ (2007.9)
I . C . R . G	48/140 (2006.10)	39/140 (2007.4)	41/140 (2007.10)
Euromoney	49/185 (2006.9)	52/185 (2007.3)	50/185 (2007.9)
I . I	42/173 (2006.9)	41/174 (2007.3)	41/174 (2007.9)

자료 : OECD, S&P, Moody's, Fitch., I.C.R.G, Euromoney, I.I.

1. 외채상환태도

□ 해외자금조달 원활

- 해외 채권발행을 통한 외자도입에 어려움이 없고, 2019년 만기의 브래디 본드 잔여분을 모두 조기 상환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음.
- 멕시코 정부는 2006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기에 반복되어 온 경제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06-07년 기일도래 정부외채 124억 달러를 조기 상환하는 등 신중한 외채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신중한 거시경제 운영과 긴축정책 지속 그리고 수출 증가와 외국인직접투자의 꾸준한 유입 및 외환보유액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대외지급능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2. 국제시장평가

□ 국가신용등급 양호

- 세계 3대 민간신용기관으로부터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S&P, Moody's로부터 투자적격등급(BBB- 이상)을 부여받은 중남미 국가는 칠레와 멕시코뿐임.
- 한편, OECD도 2005년 6월 멕시코의 신용등급을 종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 한 바 있음.

□ 주요 ECA의 지원태도

<표 4> 주요 ECA의 인수태도

미 국 수 은	최고부보율 적용
영국 ECGD	최고부보율 적용
독일 Hermes	단기전액인수 가능

자료 : D&B.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2년 1월 26일(북한과 수교 : 1980년 9월 19일)

□ 주요협정: 문화협정, 무역협정(1966), 경제과학 및 기술협정(1977), 관광사증면제협정(1979), 항공협정(1988), 이중과세방지협정(1994), 범죄인도조약(1996), 투자보장협정(2000)

□ 교역현황

단위: 천 달러

	2004	2005	2006	주요 품목
수 출	2,993,949	3,789,088	6,284,571	전기전자, 합성수지, 자동차 등
수 입	411,289	459,777	797,651	전기전자, 철강금속, 광산물 등

자료 : KOTIS, 한국무역통계

□ 경협관계는 미미한 수준

-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72백만 달러(수출 68백만 달러, 수입 5백만 달러)수준으로 크지 않으며, 해외직접투자 잔액은 6건 3,927천 달러에 불과함.

□ 우리나라가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 지속

-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가로 매년 우리나라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 2006년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수출은 62.8억 달러, 수입은 7.9억 달러로 우리나라가 54.9억 달러의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주요 수출품목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가전3사의 판매법인과 생산법인에 공급되는 컴퓨터, TV, 모니터, 휴대용전화기, 냉장고, 세탁기용 부품 및 부분품 등으로 전체 수출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 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투자는 115건 4.8억 달러이며, 주로 미국과 국경지역인 티후아나, 멕시칼리 등지에 전기, 전자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고, 그 외에 푸에블라에 섬유업체 그리고 과나후아토에 신발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음.

V. 종합평가 의견

- 멕시코 경제는 경제성장, 재정수지,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외채 등 거시경제 전반이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깔데론 정부가 강력한 마약범죄 소탕작전을 전개함에 따라 군경과 마약조직간의 유혈충돌이 지속되고 있으나 사회안정을 해치는 수준은 아니며, 깔데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 정국은 대체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경제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 경제개혁, 신중한 거시경제 운영과 외채관리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세계 3대 민간신용평가회사들로부터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부여받고 있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양호한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고 있음.